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19:00 06:30 (새 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0:30 (교 중)	
		12:00 (낮) 12:00 (초등부 소성전)	
		16:00(국제미사) 19:00 (청 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새 사제 첫 미사

4월 22일(오늘) 교중미사 10시 30분
유상철 세례자요한 이현진 바오로

- 오늘 교중미사 후 지하강당에서 새 사제 강복이 있습니다.

알림

- 다음주(4/29) 돈보스코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성경공부 동영상 시청 안내
(홈페이지 주소 : <http://guro3cc.com> → 성당소식 → 동영상자료)
- 4/28(토) 사무실 쉽니다.

외떡교우 배우자 교리 안내

- 시작일시 : 5/6(일) 12시 (교중미사 후 / 지하강당)
- 기 간 : 3개월 / 교재 : 함께 하는 여정

세례 예정	2018년 8월(두번째 주일)
접수 기간	5/5(토)까지 (사무실)

※ 부부가 함께 교리에 참석 하십니다.

모임

모임	일시	장소
· 성체분배자 성시간	4/23(월) 19시 45분	성체조배실
· 사목위원회	5/3(목) 저녁 8시	지하강당
· 예수성심회 월례 모임	5/4(금) 오후 3시	베타니아
· 성모성심회 총회모임	5/5(토) 저녁 8시	지하강당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

- 일시 : 4/29(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주임신부님 사무실
- ※ 구역장·반장님은 전입교우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석바랍니다.

방송인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교실

과목	대상자	시간
1.영화 만들기	청소년 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토요일 오후 1~3시
	성인 반	목요일 오전 10시
2.스피치 교육	청소년 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토요일 오전 10시
3.스토리 텔링		
- 장소 / 수강일 : 교육관(소성전) / 매주 토요일		
- 수강료 : 월10만원		
- 문의 : 박경석 보스코 수사님, 주일학교 담당신부님 (6738-2200)		

With- Bosco 회원 모집

- 주님의 은총 안에서 돈보스코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모인 축구동호회 입니다.
- 시간 / 장소 : 일요일 / 영서중학교
- 문의 : 신종식 요셉 (010-2721-7527)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안내

(기간 : 2017년 평신도주일-2018년 11월 11일 평신도주일)
<전대사 조건>

- (1) 교구장 주교가 정한 희년 행사나 신심행위에 경건히 참여하기 (본당에서의 ‘첫 목요일 성시간’)
- (2) 순례지 방문하여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하기.

보스코성가대(일요일 교중미사) 단원 모집

- 연 습 : 매주(목) 저녁 8시 / (일) 오전 9시
- 대 상 : 55세 이하 남, 녀 신자
- 문 의 : 단장 010-8949-7142

본당 가정간호사업 안내

대 상	* 신자, 비신자 누구나 이용 가능
	* 만성질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암환자 및 특수 간호가 필요한 분
	*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
문 의	가정간호사 (010-8229-5785)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영수증 수거함)

다음 주일(4/29)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없음(임원소풍)	청 소	20구역
------	----------	-----	------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구역미사 및 형제회 모임

일 정	구 역	성당(지하강당)	형제회
4/25	12구역	20구역	1구역
5/2	2구역	15구역	22구역
5/9	임원모임(반,구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설	복사	독서
4/22	황원선	심재순 김영균 서윤석 조홍환	하재민 백희자
4/29	손진희	오성환 유숙종 신종구 김현철	허문석 맹수진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4/22	장인홍	박승환	최상남 최석준 김광수	김인기	최승일
4/29	장인홍	김광수	황태영 박형순 손상민	박용환	최승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9,023,000원
- 주일헌금 6,230,300원
- 감사헌금 양○○ 15만원 하재민 5만원 김명순 10만원
정윤남 10만원 윤○○ 10만원 김영실 10만원
기치일 5만원 박옥연 5만원 유만근 10만원
임용순 10만원 송명순 50만원 원석희 50만원
김금자 5만원

회답송 

집 짓 는 이 - 들 이 내 버 린 돌 모 통 이 의 머 릿 돌 이 되 - 었 - 네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107. 사회생활에 왜 진리가 필요한가요?

진리를 개인적인 삶에 관련시켜 표현하자면 진실, 정직을 의미합니다. 인간 상호 간의 정직한 교제 없이는 모든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일치되지 않는 곳에서, 정직이 전제될 수 없는 곳에서는 불신과 냉정과 교활함이 인간의 연대를 결정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결정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투명성은 진리에 속합니다. 이것은 특히 재정 자원을 사용할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108.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07항)입니다.

109. 정의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요?

분배 정의와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분배 정의와 함께 사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법적 정의를 결정적으로 확장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적 정의에서는 오직 법률에 충실한 것과 국가법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재화는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부당한 차별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도 정의롭게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인간이 억압받아서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정치는, 특히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에 관련될 경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목 현장<기쁨과 희망> 29항 참조). 세계 시장에서 재화의 분배는 이른바 교환 정의에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에 대해 정당한 값을 요구해야 합니다.

110. 이러한 가치들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모든 가치는 그 근원을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8참조). 그러기에 인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회적 행동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되고 타인의 자유를 받아들이며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귀속된 것만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본래의 가치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침해받을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111. 왜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은 정의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기” (1코린 13,4참조) 때문입니다. 정의에는 자비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인간적으로 되어 갑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순수한 법적 정의는 사회 정의보다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법도 인간의 상호적인 호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것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사랑은 공동선, 말하자면 모든 인간의 온전한 복리를 위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직 호소만 할 수 있지만 정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정의로운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정의는 자비라기보다 윤리적 근본 요구에 가깝습니다.